

# 雲門

불기 2569년

겨울호

통권 제174호

雲門寺增加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마음 한 켠에 자리 잡은 운문사. 늘 그리운 고향, 어머니의 품처럼 고마움 뿐입니다. / 화엄반 혜명
- 4년 간 검게 물들인 줄만 알았는데, 눈 떠보니 찬란한 빛으로 장엄 되어 있네 / 화엄반 선재
- 마음의 번뇌도 눈처럼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 사교반 정건
- 긴 겨울 얼어붙은 가지 끝에 꽃봉오리 품어내듯, 내 마음 속에도 부처님 말씀 품어내리라 / 사교반 현소
-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해 온 도량이 긴 겨울을 거친다 / 사교반 해송
-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는 마음으로 깨끗한 겨울을 걸겠습니다 / 사집반 정원
- 하얗게 소복히 쌓인 눈처럼 내 마음도 청정무구해지길 / 사집반 재하
- 꿈에서 깨어날 계절, 누가 이 꿈을 꾸고 있는개 / 사집반 여연
- 덜 익은 감이 더 무르익도록, 치문의 마지막 겨울 그리고 새로운 시작 / 치문반 해수

# 雲門

## 목차



|    |                |                                       |
|----|----------------|---------------------------------------|
| 02 |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
| 04 | 죽림헌            | 따뜻한 차 한 잔, 영화미소拈華微笑 속의 세계일화世界一花 명성    |
| 06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나무를 쫓아서 동호                            |
| 08 | 교수논단           |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에 나타난 불신설佛身說 ① 송운         |
| 14 | 학인논단           | 티베트 심예사 논쟁에 대한 고찰 ② 해묵                |
| 19 | 想              | 혜가단비慧可斷臂 덕우                           |
| 20 | 외부기고           | 이생에서의 인연은 '차와 불법'이었네요 최명순             |
| 24 | 선지식 탐방         | 60점 짜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일면스님을 뵈고 - 정우 |
| 28 | 풍경소리           | 알 수 없어요 무아                            |
| 29 | 운문만행           | 마음의 길따라 - 진관사 수륙재와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혜명 |
| 32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군더더기를 덜어내니 좋구나 해신                     |
| 34 | 수행의 두레박 둘      | 급심정행 汲心井行 계현                          |
| 37 | 이 한 권의 책       |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선혜                 |
| 40 | 차례법문           | 심여공화사心如工畫師, 마음이 세계를 짓다 공림             |
| 44 | 화랑동산           | 얻은 바 없이 얻은 백일 동안의 가르침 해송              |
| 46 | 운문, 운문인        | 세한송백歲寒松柏 편집부                          |
| 48 | 운문논평           |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지금 편집부                 |
| 50 | 운문소식           |                                       |
| 51 | 등불             | 운문사 역사문화관                             |

따뜻한 차 한 잔, 염화미소拈華微笑 속의  
세계일화世界一花!

명성 / 운문사 회주



은행나무 아래 영산홍에 내려앉은 서리꽃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나는 이 찬 바람 속에서 사부대중이 각각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서로에게 차 한 잔의 따뜻한 마음으로 머물고 있어 덕분에 늘 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꿈’의 비유를 통해 불교적 삶의 지침을 풀어낸 『솔몽쇄언』에 보면, 먼저 꿈속에서 일어난 일체의 상황과 나타난 사물도 깨고 나면 환상일 뿐이며, 꿈은 ‘참’이 아니라고 합니다 [無常]. 이처럼 변해서 바뀌고 사라지는 것이 허상과 꿈이라면, 순간 변하고 있는 우리의 삶도 곧 환상이요, 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부귀하다고 교만할 것도, 빈천하다고 실망할 것도 없다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어떤 삶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반문한다면, 나는 큰 지혜 광명으로 보현 보살의 걸림 없는 실천을 본받아 보리활提의 숲, 바라밀 정원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금강경』 「제7 무득무설분無得無說分」에 보면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어래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는가? 또 법을 설한 바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정해진 법이 없어서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된 법이 없음을 설하신 것이어서 취할 수 없으며, 말할 수 없으며,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일체 성현은 조각이 없는 법으로써 온갖 차별을 펼쳐 보였기에 얻은 바도 없고 말씀하신 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가끔, 옆에서 남기고 싶은 말씀 없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한 마디도 남길 말이 없습니다. 간화선의 종장 대혜스님도 ‘게송이 없으면 죽지도 못하느냐?’ 고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기는 했습니다. ‘살도 이러했고, 죽음도 이러한데 남길 말이 있고 없음이 그렇게 큰일인가!’ [生也只恁麼 死也只恁麼 有偈與無偈 是甚麼熱大] 또 야부 도천스님은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물밑을 뚫어도 흔적이 없네 [竹影掃塔塵不動 月輪穿海水無痕]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늘 초발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발심發心과 필경畢竟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배워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欲教餘先自教]. 공부하는 스스로 짓는 복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기부여와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감응을 준다고 하지요. 평생 길 위에서 사셨던 부처님의 덕화德化를 본받고, 초전 법륜初轉法輪에서 설하셨던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또 마지막 유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 삼아 스스로 깨우쳐라[自燈明 法燈明].

부처님께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으니, 전도선언傳道宣言의 첫 출발을 함께 새기며 연민憐愍의 마음으로 세계일화를 실현해야겠습니다[應無所住而生其心]. ☸

## 나무를 쫓아서

동호 / 운문사 승가대학 조교수

경을 보고 있었다.

화상다목 문언 문성불 담 문 부동  
「和尚打木, 問言: 聞聲不? 答: 聞, 不動」.

화상이 '나무' 를 두드리며 물었다.

“소리가 들립니까?”

“들립니다. 부동不動입니다.”

'나무' 라고? 목탁인가? 음, 당나라 때는 목어를 사용했다고? 그럼, 목탁은? 조선 시대부터였네. 항상 눈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깨어 있는 수행자로 살라고 두드리는 거네. 중국에서 온 건가? 아하, 중국은 우리처럼 들고 치지는 않네. 용머리에 물고기 몸이네. 승천하는 용처럼 깨달음을 얻으라고, 아, 그 꼬리!

‘소리가 들린다.’

다음, '부동' 이라. 귀는 소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라져 가고 있을 때도 항상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서 귀와 다른 지각기관들은 본래부터 '부동' 이라고 하는 거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지. 여기에 '들림' 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네. 음... 이 '들림' 에 의해서 좋고 싫음, 취사의 분별이 나타나니까 귀가 부동인 것을 안다면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이고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야. 부동에서 통찰의 문이 열리는 거네.

'나무' 를 풀이하다가 글이 표현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다.

문득 이 법회의 온전한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때는 중국 당나라. 세 황제의 문사門師<sup>1)</sup>이자 최초로 '선사禪師' 의 시호를 받은 그 유명한 신수스님 법회의 모습이다. 법회의 목적은 '대승', 다섯 가지 수행을 통해 성불하기 위함이다 ('대승오방편大乘五方便'). 첫 번째 수행은 '마음이 없으면 곧 부처다(離念門)' 라는 내용으로 2부의 법회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먼저 보살계를 받고 다음에 화상의 법문을 듣는다.

1부) 보살계 수계

一. 사홍서원

一. 지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법회의 자리로 청함

一. 불법승 삼보에 귀의

一. 발원

하나, 오늘부터 보리에 이르도록 모든 악한 이를 멀리하겠는가?(네. 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선한 이들을 가까이하겠는가?  
(네. 하겠습니다.)

하나, 능히 계를 지녀서 죽을 때까지 지키겠는가?(네. 하겠습니다.)

하나, 대승 경전을 독송하며 깊은 뜻을 묻고 배울 수 있겠는가?(네. 하겠습니다.)

하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힘닿는 데까지 구호할 수 있겠는가?(네. 하겠습니다.)

一. 참회와 보살계 수계

2부) 법문

화상: 결가부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처럼 담담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롯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一念淨心 부처의 경지에 단박에 올랐습니다. 목탁에 맞추어 함께 부처를 염합시다.

금강경에 “무릇 상은 모두 허망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보아 청정함을 알면 곧 부처의 경지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츠리지 말고 확 트이게 하여 멀리 바라보십시오! 평등하게 허공 끝까지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제자: 한 물건도 보지 않습니다.

화상: 청정한 마음의 눈으로 세밀하게, 한량 없이 멀리 보십시오! 무엇을 봅니까?

제자: 한 물건도 보지 않습니다.

화상: 앞을 향해 멀리 보십시오! 뒤를 향해 멀리 보고 사방과 상하를 평등하게, 허공 끝까지

보십시오. 청정한 마음의 눈으로 끊임없이 한량 없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조화로워지고 걸림 없게 됩니다.

사방이 모두 청정해서 한량없는 허공과 같은 하나의 모습 一相이네. 마음이 없으니, 몸이 없고, 둘 다 없으니, 번뇌가 없어서 자재로운 거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의 수행인 ‘부동문不動門’으로 이동하는 거야. ‘들림’에, 온갖 경계들에 대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지. 무념과 무심의 선정 속에서 지혜가 열리고 고요한 가운데 비춤[寂照]이 시작되는 거네.

연극 대본 같아. 수계식을 통해 불보살님들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문답으로 ‘마음이 없음[心不起]’ 혹은 ‘마음이 청정한’ 경지를 보여주고, 다음에는 ‘소리’를 일으켜서 지혜가 열리는 과정을 표현했어. 마지막 5단계는 걸림 없는 해탈인 거지.

신수스님 다시 봐야겠어! ㉞

1) 문사門師 : 속세에 거주하는 선남선녀가 삼보에 귀의할 때 이를 증명하는 스승.

##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에 나타난 불신설佛身說<sup>1)</sup> ①

송운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의 불신설佛身說

1. 자비방편신慈悲方便身
2. 진여법신眞如法身
- 3.十方遍滿身

#### II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대승불교大乘佛敎시대에 들어와서 불신설佛身說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종래의 유한무상有限無常의 색신色身보다는 영원불멸한 진리, 즉 법신 중심의 불신설로 확립되었다.

본 고에서는 초기대승경전 가운데 대표적인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즉, 자비방편신으로 나타난 『무량수경』과 『법화경』, 진여법신의 『금강경』과 『유마경』, 그리고 『화엄경』을 통하여十方세계에 가득 찬 불신佛身의 세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 II. 초기대승경전初期大乘經典의 불신설佛身說

#### 1. 자비방편신慈悲方便身

부파불교 시대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자비방편신의 현재타방불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신앙의 새로운 국면을 전개한 것은 초기대승불교시대에 나타난 동방 묘희국의 아축阿閼(Aksobhya)불설 내지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Amita)불설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반야경』에도 타토他土불설이 나타나고 있으나<sup>2)</sup> 아직 암시적임에 불과하고, 이 밖에도 『불설보망경』의 육방육불설<sup>3)</sup>, 『불설멸시방명경』의十方십불설<sup>4)</sup> 또는 『대승보월동자문법경』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현재타방불로서는 동방 묘희국의 아축불과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불 및 유리광정토의 약사여래 등이다. 그러나 현재타방불 신앙의 중심은 극락정토의 아미타불로 볼 수 있으며, 미타불은 현재타방불 신앙의 주류가 되었다. 먼저 『무량수경』에 나오는 아미타불의 유래

를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무수의 구원 겁 전에 정광여래가 세상에 출현하였다. 뒤이어 광원여래 등 52불이 차례로 나오고 제54번째로 세자재여래가 나타났다. 그때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국왕이 그 불의 설법을 듣고서 크게 감동되어 마침내 보리심을 내어 출가하니 법장비구이다…… 그는 5겁 동안의 사유를 통해 이 가운데 최선의 정토와 인행을 선택하여 48가지 서원을 세운 후, 6바라밀 등 보살행을 닦아 10겁 이전에 정각을 이루었다. 그가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 극락정토를 건설하여 있다.<sup>5)</sup>

라고 한다. 즉 아미타불은 무수의 겁 동안 6바라밀 등 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면서 극락정토를 건설하여 교주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 또 극락정토의 교주로서 광명무량 수명무량의 덕상德相이 최대요소라고 말한다. 먼저 광명에 대한 설명이다.

무량수불의 위신광명은 가장 높고 제일이어서 제불의 광명이 미칠 바가 못 된다……그러므로 무량광불·무변광불·무애광불·초일월광불이라고 한다.<sup>6)</sup>

이 광명을 보는 자는 탐진치의 삼독이 없어지며 심신이 유연하여 환희심에 가득 차서 착한 마음이 나게 된다. 삼악도에서 이 광명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평안을 얻어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고 목숨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는다. 여기서 광명은 곧 지혜의 광명으로서 불佛의 공간적 무한성을 말한 것이다. 또 수명이 끝없음에 대해서도 ‘무량수불은 수명이 장구하여 헤아릴 수가 없다. 그대가 어찌 알 것인가?’ 7)라고 하여 자비의 생명으로서 불의 시간적 무한성을 말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보처보살인 지혜의 상징 대세지보살과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도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또 법장비구의 본원인 48원 가운데 43원이 십취중생원攝取衆生願이다. 즉 시방의 일체중생을 다 받아들이는 구제불의 자비 서원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제18 염불왕생원과 제19 내영인접원 등은 자비로운 불의 본원인 정토왕생 사상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설령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 해도 시방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였으되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 다만 오역죄인과 정법을 비방하는 자는 제외하고…<sup>8)</sup>

1) 이 논문은 『한국불교학』 제50호(2008년 2월)에 실린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大正藏』 8, p. 550中, p. 555中.

3) 『大正藏』 14, p. 78上 以下.

4) 『大正藏』 14, p. 105中 以下.

5) 『大正藏』 12, pp. 266下-270上.

6) 『大正藏』 12, p. 270上-中.

7) 『大正藏』 12, p. 270中.

8) 『大正藏』 12, p. 268上.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였으나 왕생하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정각을 미루겠다는 연민의 다짐이며, 왕생의 실천법인 염불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제18의 염불왕생원으로 보면, 아무리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도 지극한 마음과 신심 그리고 그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력願力の 삼심三心을 갖추고 일념一念 내지 십념十念으로 염불하면 아미타불의 본원력과 자비에 의해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죽음에 이르러 아미타불 내지 화불化佛이 맞이한다는 임종래영설 또한 염불왕생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내가 부처를 이루었을 때 시방의 중생이 보리심을 내어 많은 공덕을 쌓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불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자가 임종할 때에 가령 보살 대중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sup>9)</sup>

이와 같은 염불왕생과 임종래영의 사상을 바탕으로 후세 정토교에서는 누구든지 임종할 때 열 번 아미타불을 부르면 직접 맞이한다는 청명염불이 강조되기도 했다. 또 정영사 혜원은 『무량수경의 소』에서 이 48원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0)</sup> 그 가운데 43가지의 원이 모두 중생을 위한 원력의 삶이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一 섭법신원攝法身願 — { 제12 광명무량의 원  
제13 수명무량의 원  
제17 제불칭양의 원
- 二 섭정토원攝淨土願 — { 제31 국토청정의 원  
제32 국토업식의 원
- 三 섭중생원攝衆生願 — 以外 43원

여기서 섭법신원이란 법신을 받아들이는 원이다. 보살이 깨달음을 펼쳐 불의 신상 공덕에 대하여 거두어들이고, 자신의 불신을 성취할 것을 바라는 원이다.<sup>11)</sup> 섭정토원이란 정토를 포섭하는 원이다. 보살이 성불한 뒤에 불의 정토 가운데 훌륭한 장엄 공덕을 선택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원이다. 섭중생원이란 시방의 중생에게 이익 베풀 것을 서원했다.<sup>12)</sup>

한편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는 ‘지혜의 광명이 한량없으며 수명 또한 헤아릴 수 없다.’<sup>13)</sup>라고 하여 석가불의 설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화경』의 구원석가불사상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아미타불의 사상이 끼친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 아미타불을 불신상에서 불 때 보신불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신불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대체로 실제적 신앙

9) 『大正藏』 12, p. 268上-中.

10) 『大正藏』 37, p. 92上.

11) 淨土宗義學上에서 論하는 三身の 하나로서 法身은 아니며, 功德法을 성취한 佛身을 말한다.

12) 이 아미타불의 본원에 대한 세 가지 분류는 上記의 淨影寺 慧遠의 說이 처음이다.

13) 『大正藏』 9, p. 43下.

측면에서 보신불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구제불의 서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곧 대승불교의 이타적利他的 삶인 보살의 원력을 고조시킨 현재타방불관의 예이며, 중생구제의 불타관과 신앙이 성불과 극락정토건설, 그리고 중생구제의 근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법화경』에서 고찰한 자비 방편의 신身이다. 『묘법연화경』의 묘법은 최고의 진리를 지칭한다. 연화(Puṇḍarika)는 청정한 것의 비유로서 한갓 추상적 이론으로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구체적 인격을 통한 실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또 본 경만큼 대승불교 전역에 걸쳐 종파를 초월한 종교적 정신을 발휘하여온 경전도 드물다고 본다. 내용은 크게 적문과 본문의 두 부분으로 나눈다. 적문의 중심사상은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일불승一佛乘사상이고, 본문의 중심사상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본불本佛사상이다.

「여래수량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지는 심히 오래되었으며 또 나의 수명은 무량아승지겁이어서 상주 불멸한다.'<sup>15)</sup> 즉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로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에 이미 성불하여 석가족의 왕궁에 태어나기 전부터 본래 부처이다. 이 세상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방편으로 이생에서 성불하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sup>16)</sup>

역사적 존재로서의 구체적 불타인 석가불을 중시함과 동시에 그 석가불의 수명과 불신이 영원무한하다는 것이다. 모든 대승경전에서도 이미 법신이 상주한다는 설은 일반론으로 되어 있으나 이처럼 가야 성도의 석가불 수명이 오래다는 설은 본경의 「수량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다.

「서품」에서는 또한 평상시에 중생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광명이 동쪽에서 비춤으로써 넓고 깊은 인연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다 높은 불도를 성취하였음을 보여 준다.

부처님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그 광명이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렀다. 이 광명을 힘입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온갖 풍광을 보게 되었다.<sup>17)</sup>

이는 어두운 중생계에 자비의 광명 지혜의 광명 신통의 광명 복덕의 광명으로 중생과 함께하는 불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부처님의 대자비심은 다양한 비유를 통해 볼 수가 있다.

그때 장자는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은 이미 커다란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으니 저 아이들

14) 『大正藏』 9, p. 42上.

15) 『大正藏』 9, p. 42下.

16) 『大正藏』 9, pp. 42-43.

17) 『大正藏』 9, p. 2中.

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은 희유하고 얻기 어려운 장난감이 있다.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가 지금 문밖에 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주리라.<sup>18)</sup>

일체 중생과 여래를 가장 밀접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이처럼 불길에 휩싸인 집 안에서 아이를 구해내는 부처님의 자비와 방편의 이야기는 곧 삼계의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로서 믿고 예를 올리는 경전적 증거도 이 「비유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신해품」 제4에서는 부유한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데려오는 과정의 비유가 설해져 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에 집을 나가 다른 지방에서 산 지 오래되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우 빈궁하여 사방으로 의식주를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을 향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하고 어떤 성에 머물게 되었다. 그 집은 크게 부유해서…… 그때 빈궁한 아들은 여러 지방과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이르러 만나게 되었다.<sup>19)</sup>

끝없이 기다려 주는 연민의 마음이다. 아버지

는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온갖 방편을 써서 보살피며, 성숙해질 때까지 도움을 주다가 인연이 깊어졌음을 알고는 아들에게 가업을 모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부처님은 늘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는 자비 방편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법사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이다.

여래가 입멸한 후에 이 경을 서사하고 수지하며 독송하고 공양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설법하는 이에게 옷으로 덮어 준다…… 여래는 다른 나라에서 설법하는 이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을 모이게 하며, 또한 변화된 대중들을 보내 설법을 듣게 하리라. 만약 설법하다가 이 경의 구절을 잊으면 여래가 알려 주고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sup>20)</sup>

법을 듣는 청중이 없으면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러한 뜻은 좀 더 나아가서는 불과 법을 동격으로 보는 법신불사상의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제바달다품」 제12에 ‘미묘정법신微妙淨法身 용장엄법신用莊嚴法身’<sup>21)</sup>외에는 법신의 한역어漢譯語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근본 취지는 구원 석가라고 하는 구체성이 풍부한 불타관에 그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신앙을 말할 때 흔히 법화 신앙을 말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불신설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할

18) 『大正藏』 9, pp. 12下-13上.

19) 『大正藏』 9, p. 16中 以下.

20) 『大正藏』 9, pp. 31中-32上.

21) 『大正藏』 9, p. 35中-下.

수 있다.<sup>22)</sup>

부처님은 항상 중생과 함께 있으면서 옷으로 덮어 주기도 하고,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며, 청중을 모아 주기도 하여 설법을 듣게 한다. 또 중생 속에서 어두움을 밝혀 주며, 불 속에서 꺼내 주고, 이끌어 주셨다. 이는 일체 중생에게 본래 가지고 있는 불지견佛知見을 열어(開)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보여 주고(示) 스스로 깨우쳐(悟) 들어가게(入) 하였다. 즉 제불諸佛은 일대사인연으로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제법실상의 근본이념 아래 삼승방편 일승진실의 가르침이라고 하여 방편의 삼승이 진실의 일승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회삼귀일사상은 제법을 통일할 뿐만 아니라 석가불의 입멸을 계기로 모색되어진 과거·미래·현재의 모든 불을 석가불 중심으로 개적현본開迹顯本하여 구원실성의 본불사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타방현재불 등 다불多佛의 통일체로서의 구원석가불 사상을 설하였으나 진여 법성으로서의 법신사상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교학상에서 제기되는 바와 같이 불신론상에서 불 때 이 구원석가불을 보신불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신불의 의미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서 세친은 그의 『법

화경론』 권하에서 ‘석가 일신에 응불·보불·법불의 삼불보리가 구족 되어 있다’라고 하여 삼신즉일三身卽一을 강조하고 있다.<sup>23)</sup> 물론 『법화경』의 구원석가불사상의 근본 취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세친의 해석은 그 정곡을 찌른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후세에는 본 경의 구원석가불을 정토계의 아미타불과 같이 보신불로 보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구원석가불이 아무리 오백억진점겁五白億塵點劫 내지 무량아승지겁을 통해 상주 불멸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 내적 존재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상대적 대상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것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영원 무한한 보편적 존재로서의 법신불에 그 초점이 주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up>24)</sup>

이상과 같이 『법화경』의 불신설은 불佛의 통일체인 구원석가불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상, 본질론으로서의 불신설 즉 진리(法) 그 자체를 불신으로 보려는 법신사상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은 것 같다. 또 후에 정토교로 대표되는 구제불사상의 기반도 이 『법화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22) 서종범, 『初期大乘經典에 보이는 佛身說』, 『승가』 10 (중앙승가대학교, 1992), p. 268.

23) 『大正藏』 26, p. 9中

24) 노권용, 『佛陀觀의 研究』 (圓光大大學院 博士論文, 1987) p. 72.

## 티베트 삼예사 논쟁에 대한 고찰 ②

해묵 / 사교과(3학년)

### 목 차

I. 들어가며

II. 삼예사 논쟁의 중요 쟁점

1. 논쟁의 전개와 결과

1) 티베트의 기록, 『바세(sBa bzhed),

2) 중국(둔황)의 기록, 『돈오대승정리결頓悟大乘正理決』

2. 마하연 선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비판

III. 나오며

참고문헌

### 2) 중국(둔황)의 기록

둔황에서 발굴된 『돈오대승정리결頓悟大乘正理決』에 의하면 마하연은 티베트에 의하여 둔황이 점령될 무렵 그 지역에서 신도가 5천에 이르는 대덕大德으로 칭해졌으며, 티송데첸왕의 초청으로 다른 중국 스님들과 함께 라싸에 머물며 돈문과頓門派 선종을 전파하였다.

양측의 기록에 따르면 삼예사 논쟁 이전에도 한차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돈오대승정리결』은 사실상 그 첫 번째 논쟁에 대한 기록이라는 주장이 있다. 티베트의 기록은 간략한 반면 『돈오대승정리결』에서는 티송데첸왕의 직접적인 관여와 마하연의 상소문이 실려 있다. 마하연은 상소문에서 인도 스님들이 질문을 제출하면 본인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하며

답변이 불설佛說이 아니라면 포교를 중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왕이 인도 스님들에게 약 2년간 매달 질문지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모든 질문과 답변 내용은 통역자가 참여하여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술년(戊年, 794년) 정월 15일에 이르러 티송데첸왕이 크게 명을 내렸다. “마하연이 가르치는 선의 禪義이란 전적으로 경문經文에 의거해 나온 것으로 조금의 잘못도 없다. 이제부터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이 법에 따라 실천 수행해도 좋을 것이니라!”

『돈오대승정리결』에는 마하연이 대론에서 승리하였음을 위와 같이 밝히고 있다. 삼예사 논

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30여 개의 문답들이 실려 있는데 마하연은 『능가경楞伽經』과 『금강경金剛經』 등 16여 편의 대승경론들을 인용

하여 답변하였다. 마하연의 논지가 티베트 『바세』에 거의 실려 있지 않은 관계로 『돈오대승정리결』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질문]** '간심着心하여 습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어느 경문에 나오는 것인가?

**[1 답변]** 『수능엄경』에 이르기를, '육근六根 가운데 한 가지 근根이라도 근원으로 돌아가면 육근이 모두 해탈한다'<sup>1)</sup>고 하였다. 그 견해는, '일체의 망상습기를 여의면 제불諸佛이라고 한다'<sup>2)</sup>고 설하는 『금강경』과 대승경전들과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간심着心으로 인해서 심상과 망상 습기를 제거한다고 한 것이다.

**[2 질문]** '불佛이란 한량없이 많은 겁 이래 무량 공덕과 지혜가 원만히 갖추어지고서야 비로소 성불한다.'고 하였으니, 만일 망상을 없애는 것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었다면 6바라밀과 12부경전들을 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답변]** "중생들이 무량겁 이래 삼독 번뇌를 여의지 못하면, 무시 이래 마음의 상념과 망상의 습기로 인해 생사에 유랑하여 해탈하지 못한다. 『제법무행경諸法無行經』에 이르기를, '만약 모든 법에 대한 일체 생각을 제거한다면 이 법들은 대상화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없으니, 이렇게 다 제거된 자를 득도한 자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문수사리가 묻는다. "세존이시여, 모든 법에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다면, 대체 그 법들을 두고 모든 불선법을 제거하여 모든 선법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말할 수 없다." "세존이시여, 모든 법에 일어남도 사라짐도 없고, 불선법의 제거도, 선법의 성취도 없다면, 대체 무엇을 보며, 무엇을 제거하며, 무엇을 깨달아 알며, 무엇을 닦으며, 또 무엇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하였으니, 바로 이렇게 37도품을 완전히 갖추고 모든 공덕을 성취한 상태가 되려면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능가경』에 의거하여 말하면, 12부경이란 모든 경經은 일체의 중생심에 수순하여 설한 것이나 진실이 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아지랑이에 동물들이 미혹하여 속아서 물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물이 없는 것과 같다. 많은 경전에서 설하는 바도 이와 같아서 어리석은 범부들이 스스로 분별하는 바에 따라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3 질문]** 『금강경』에 이르길, '제법을 완전히 통달하고 관찰한 뒤에야 관찰 없이도 지혜와 하나가 되고, 모든 선법을 남김없이 닦은 뒤에야 닦지 않고서도 중생 구제를 위한 대지혜가 저절로 이루어진다'<sup>3)</sup>고 하였다. 범부들은 본래 일체법을 통달하지 못하였고 여러 공덕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망상을 멸하는 것만으로는 성불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법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이고 일체 선법을 닦는 것은 복덕이다. 일체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는 다겁의 세월을 거쳐야지만 여러 복덕과 지혜의 힘으로 인해 삼매 속에서 관찰이 필요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sup>4)</sup>.

**[3 답변]** 『사익경思益經』에 이르길, '사람이 천만억 겁 동안 도를 행하더라도 법法의 성리性理는 늘어남도 줄어들도 없다.'고 하였다. 이 이치를 깨달는 것을 대지혜라고 한다. 법의 성리에 닦음이 있거나 없다고 하는 것이 모두 망상이다. 법성의 도리에 의하건대 망상을 여윈다면 대지大智가 자연히 성취된다. 복덕과 지혜로 논하더라도 법성의 도리와 법성의 삼매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점법과 돈법이라 하는 것도 모두 중생의 심상心想의 망상 지견일 따름이다. 때문에 『능가경』에 이르기를 '인연 화합으로 인하여 생긴 심상에서 나온 돈법과 점법의 지견을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질문4]** 『십지경十地經』에 의하면 관찰하지 않음(不觀)에 진입하는 것은 제8지의 보살들로, 그럼에도 부처님께서 이들에게 행행을 닦으라 명하신다. 초지初地에도 이르지 못한 범부들이 어찌 관찰함이 없는 경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답변4]** 『능가경』에 이르기를, 제8지의 보살들은 7지에서 연기지혜가 구축돼서 관찰(觀)과 분별 습기를 전부 떠났다. 셀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닦은 선하거나 악한 업도 간다르바의 성城 즉 환영과 같은 것이다. 완전한 앎[了知, pariñāna]을 가진 보살은 모든 행행을 뛰어넘는다. 제8지의 보살들이 보살행을 닦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5-1 질문] 6바라밀 등과 여러 법문들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5-1 답변] 세속제世俗諦에서는 6바라밀 등을 방편으로 써서 승의제勝義諦를 드러내는 까닭에 필요한 것이지만 승의제에서는 언설을 떠난 궁극적인 공성의 자리이므로 말할 것이 없다.

[5-2 질문]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 것인가?

[5-2 답변] 법성의 근본 이치에서 보면 설할 것이 없다. 유有와 무無가 하나인가, 다른가 하는 분별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3 질문] 경문에 널리 설해져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해서 말로 설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가?

[5-3 답변] 경문에 널리 설한 바는, 둔근기鈍根機에게는 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근利根에게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비유컨대 병든 자에게는 약이 필요하고, 강을 건너려는 사람에게는 배가 필요하지만, 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으며, 강을 이미 건넌다면 다시 배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6-1 질문] 지혜로 관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는가?

[6-1 답변] 「입여래공덕경入如來功德經」에서 부사不思와 불관不觀이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부사不思와 불관不觀이 반야바라밀을 뜻하는 것이다.

[6-2 질문] 당신은 반야바라밀을 바탕으로 설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선禪은 말하지 않는가? 붓다는 반야바라밀에 연유하여 6바라밀을 변별하여 설하였다.

[6-2 답변] 6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구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을 갖추면 나머지 5바라밀은 닦든 닦지 않든 성취되는 것이다.<sup>5)</sup>

선을 말하지 않은 것은, 『보적경寶積經』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참된 선정 수행은 제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사익경』에서는 “어떤 법에도 머물지 않음을 선정 바라밀이라고 한다.”라고 하며, 또 『능가경』에서는 “분별에 빠지지 않는 것, 열반에 대한 외도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선정 바라밀.”이라고 하였다.

[7 질문] 대승 경전들은 이렇게 설한다. 둘이 없음이야말로 참이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지혜이고 나누는 것은 방편이다. 그러나 지혜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분별은 하지 않아야 한다.

[7 답변] 무시 이래로 제불諸佛이 삼독 번뇌에서 온 망상 분별에서 벗어나셨고, 여래께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무분별 지無分別<sup>6)</sup>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물의 모든 개별상을 탁월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 분별이 없고 둘이 아닌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망상분별은 부처의 경지에서 보면 한 티끌도 없기 때문이다.

## 2. 마하연의 선법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 평가

마하연의 선법은 삼예사 논쟁 이후 표면적으로는 티베트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나 여전히 일부 수행자들에 의해 전승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까말라셀라의 『수습차제修習次第』나 쯙카과의 『람림첸모(菩提道次第論)』<sup>7)</sup> 등에서처럼 마하연의 선법을 극한의 적정寂靜주의로 매도하며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12세기에는 싸까 뻘디따<sup>8)</sup>가 ‘현재의 마하무드라<sup>9)</sup>는 족첸에서 하강과 상승의 법을 점수와 돈수로 이름을 바꾼

것 말고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 고 하면서 까규파의 마하무드라에 국한하지 않고 닝마파의 죽첸<sup>10)</sup>까지도 논박하며 티베트 불교학과 간의 크고 작은 논쟁을 일으켰다.

반면에 마하연의 선법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의 수행법이 마하연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공격을 받으면 철저하게 거리를 두거나 갖가지 근거를 들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부분의 논사들과는 달리, 14세기에 룡젠빠는 마하연의 '선과 악이 모두 태양을 가리는 검은 구름과 흰 구름에 비유된다' 고 하는 발언을 인용하여 '근기가 낮은 이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마하연의 비유는 진리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정확하였다.' 라고 하였다. 또 '과드마삼바바, 비말라미뜨라, 딸로빠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위대한 스승들은 인과나 선악을 설하는 것을 떠나서 곧장 가리켰다[直指] 고 하며, '대원만의 동시적 실현은 가장 예리한 근기를 지닌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인물은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은 화상의 돈문수행 역시 이론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한다.' 고 하였다. 또 18세기에 직매 링과<sup>11)</sup>는 '반약 기억하지 않음[無念]과 사유하지 않음[無作意]이 분석하는 지혜를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승자(까말라썰라)의 반야경 또한 동일한 과실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마하연을 옹호하였다.

### III. 나오며

8세기 말 티베트 삼예사 논쟁에서 깨달음에 대한 두 방법론적 차이는 끝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양측 입장에 따라 서술상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점은 돈오와 점수의 문제에 있다. 돈문파는 선행, 계율, 보살의 실천 덕목과 방편 수행 등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으로서 깨달음 그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대상에 대한 분별의식을 벗어나면 한순간에 깨닫고, 윤회가 그대로 열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점문파는 3승의 학습, 6종의 바라밀, 10지의 단계적 수습 등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공성을 체득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단계를 무시하고 윤회가 곧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마하연은 '사람은 선행이든 악행이든 행위의 결과를 받기 때문에 해탈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작용도 없어야 한다' 는 불사불관不思不觀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까말라썰라는 '사고작용이 없다면 관찰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수행자도 무분별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사념思念을 중단하면 무자성無自性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박한다. 다시 마하연은 이것은 모두 망상분별에 지나지 않으며 참된 성품은 본래 내재 되어 있는 것[眞性本有]으로서 마음의 작용이 끊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까말라썰라는 육바라밀의 실천행이 따를 때만이 반야가 완성된다는 입장에서 마하연의 주장이 대승불교의 근본 과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양측의 방법론적 차이는 각각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도불교>의 입장으로 5바라밀을 실천함과 동시에 '반야바라밀' 을 완전히 닦은 후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중국화된 불교>의 입장으로 문자와 언설로 이루어진 사유와 분별을 '망상분별' 로 보고, '간심看

心'을 토대로 궁극적 진리를 체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은 대비 되는 듯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으므로 상호 보완해 주는 관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역사적 포용력과 시대적 감수성이 그와 같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간에 초기경전이나 아비달마의 입장에서 심해탈心解脫과 해해탈慧解脫<sup>12)</sup>의 양면으로도 보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鼓舞적인 일이다. 한정된 지면상 내용 전부를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삼에사 논쟁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수한 언어와 관념에 대한 공성空性이다. ॥

〈참고문헌〉

『라싸 종교회의』, 폴 드미에빌(DEMIEVILLE, Paul) 저, 배재형, 차상엽, 김성철 역, 도서출판 씨아이알, 2017.

『티베트 돈침논쟁과 선(禪)수행 담론』, 박태원 저, 『철학논총 제84집 제2권』, 새한철학회 논문집, 2016.

『Tibetan Zen: Discovering a Lost Tradition』, Sam van Schaik(샘 반 샤키) 저, Snow Lion, 2015.

『The Great Perfection and the Chinese Monk: rNying-ma-pa Defences of Hwa-Shang Mahayana in the Eighteenth Century』, Sam van Schaik(샘 반 샤키) 저, 『Buddhist Studies Review』, 2003.

---

1) 『수능엄경首楞嚴經』 권4, 一總返源, 六根成解脫. 원문에는 『불정경佛藏經』으로 표기되었다.  
 2) 『금강경』 離一切諸相 則名諸佛. '相'을 구나발타라 역 『능가경』에 따라 '망상습기妄想習氣(vikalpa-vasana)'로 대체한 것이다.  
 3) 『금강경』에 없는 대목으로 금강경을 점수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폴 드미에빌).  
 4) 『금강경』은 보살들이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공덕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설하긴 하지만 이것은 모든 법法和 모든 상想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폴 드미에빌).  
 5) 『팔천송반야경八千頌般若經』에 이른다. 바라밀을 행할 때 입체지의 획득을 지향하고, 바라밀행에서 온 공덕들이 입체지로 전환되어 비로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여섯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이 반야바라밀의 협력을 의지하여 일체 바라밀이 성숙되는 것이다 (폴 드미에빌).  
 6) 무분별지無分別智 : 분별을 여윈 지혜. 대상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 분별이 없는 것을 일컫는다. 무착無著은 무분별지를 "뛰어난 지혜"로 칭하는 반면, 인도의 주석자들은 무분별지를 반야바라밀과 동일시한다 (폴 드미에빌).  
 7) 풍카파(Tsong kha pa, 1357~1419) : 겐룩파의 개조開祖. 저서에서 마하연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단지 마음 하나만을 깨침으로써 성불한다는 주장은 대승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둘째, 세속의 선행 등을 배척하는 것은 곧 색신色身을 성취하는 방안을 차단하고, 인과 자체를 파괴하는 단견斷見에 떨어진 것이다. 셋째, 단순한 불사不思와 부작의不作意는 여실한 분별지를 막음으로써 무아의 공성을 결탁해서 무분별지를 획득하는 길을 차단하므로, 무상無想을 닦는 것만으로는 불지佛地에 도달할 수 없다.  
 8) 싸까 뽀디따(Sa skya Paṇḍita, 1182~1251) : 원명은 쉰가 겐첸으로 싸까파의 4대 조사.  
 9) 마하무드라(Mahamudra, 大印) : 마음의 활동에서 벗어나 몰입하고, 집착 없는 밝은 마음으로 언어를 초월하며, 모든 현상이 텅 비어 있음을 자각하고,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님을 깨달아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수행법.  
 10) 족첸(rDzogs-chen, 大圓滿) : '대구경大究竟'이라고도 한다. 개념을 넘어선 상태를 강조하며 명상, 수행,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거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연의 상태인 립파(Rigpa)를 발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강조한다.  
 11) 직메 립파(Jigs-med Gling-pa, 1730~1798) : 낭마파의 족첸수행을 이론적, 수행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시킨 퉁첸파(Klong-chen-pa, 1308 1353)의 환생으로 여겨진다.  
 12) 심해탈心解脫 : 선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해탈. 해해탈慧解脫 : 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탈

# 혜가단비慧可斷臂

덕우 / 사집과(2학년)



## 이생에서의 인연은 '차와 불법' 이었네요



원만행 최명순

무수한 낙엽이 쌓인다. 온 곳으로 돌아가는 길.  
한 잎 한 잎, 잎마다 세월을 견디어 온 얼굴이다.  
오늘도 하염없이 돌아간다.

내일은 운문사에서 1년에 한번 있는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날이다. 오백전의 입재와 회향 때마다 수십 년 동안 늘 차를 올리는 청복淸福을 누리고 있다.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법향을 올리고자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차와 찻잔을 고르고 차림새를 신경 쓰는 나는 여전히 30대의 마음이다. 나는 운문사 스님들에게 운문사 차 보살님으로 불려진다. 오백전뿐만 아니라 운문사 동문회 등 대소사에도 빠짐없이 차 공양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과의 인연은 20대 젊은 시절 조계산 천자암에 계시는 활안스님을 찾아뵙고부터이다. 집안 사정으로 1985년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활안스님께서 대구 가면 운문사 명성스님을 찾아뵙고 '그 절에 다녀' 라고 당부하셨다.

인연이란 묘하게도 맺어지는 연기의 법칙이다. 운문사 명성스님을 찾아뵙러 운문사로 가는 중에 대천 버스정류장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운문사행 버스를 기다리던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가게 되었다. 바로 현재 운문사 울주로 계시는 일진스님이다. 스님의 친절한 안내로 현재 운문사 회주스님으로 계시는 명성 큰스님을 뵙게 되었다. 이 인연을 시작으로 스님의 유발상좌가 되어 지금까지 40여 년이 더 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큰스님은 당시 50대셨는데 학인 스님들에게 많은 외전外典을 공부하게 하였고 이미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등 시대를 앞선 선구자적인 안목으로 비구니 승가를 이끌고 계셨다. 현재 망 백望百을 훌쩍 지나 백수白壽를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여전히 젊은 시절 보였던 그 하루 일과를 실천하고 계신다. 운문사의 최고 명물인 수령樹齡 500년이 된 처진 소나무가 늘 그 자리에서 여여하듯이 말이다. 지금도 은사스님의 '매사에 진실하라(즉사이진卽事而眞)'는 가르침은 가끔 사소한 일상을 흔들어 경책한다.

어느 날 점심공양을 하고 스님을 모시고 운문사 도량을 걷는데 한 말씀 하신다. '운문사에 300명 대중이 있지만 정원사는 나 혼자뿐이에요. 운문사 도량에 들땡이 하나, 풀 한 포기, 나무



원정 원만행(맨 왼쪽)과 명성스님(맨 오른쪽)

한 그루라도 내 손길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떤 나무는 대여섯 번 옮겨심기도 했어요.'라며 도량에 텅구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도량에 있을 때는 쓸모없지만 공양간에 가면 땡감으로 쓰인다고 말이다. 몸소 즉사이진을 실천하시는 스님의 향기는 초심자들을 가르치는 운문사 도량에 여전히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큰스님을 직접 뵙지는 않더

라도 운문사 도량에 다니는 것 자체가 큰스님을 친견하는 것과 같아 팔순이 넘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하고 환희롭게 한다.

큰스님과의 인연은 늘 나를 깨어 있게 하였고, 자연스레 나의 삶이 불법과 맞닿아 있음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스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고민하게 만들었다. 무슨 복인지 운문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찰을 참배하며 스님들의 법담을 들을 기회가 자주 주어졌다. 이때 으레 찻자리를 펼치는데, 차향과 산사의 맑음이 더해져 몸과 마음도 맑아지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이에 다도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였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일에 차 공양을 올리는 모습

고, 여러 산사를 찾아다니며 몸소 체험과 연구를 하였다.

어느 날 차를 공부하러 서울에 계시는 선혜스님을 찾았을 때, 스님께서 차를 한 잔 다려 주면서 '차 맛이 어떠냐?' 고 물으셨다.

'소죽 향이 나요.'

그러자 스님께서 '보살은 차 선생 하면 되겠네.' 하셨다. 그 이유를 '보살은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네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차 선생을 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셨다. 10년이 지나 다시 스님을 찾아뵙고 5년 동안 매주 서울을 다니며 차에 대한 문헌을 공부하였다. 차 공부에 대한 성취를 기념하며 스님께서 은천隱泉이란 호를 주셨다.

흔히 차와 선禪 수행을 다선일여茶禪一如로 표현하는데 이는 차와 선禪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차를 재배하고 다리고 마시는 과정에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생성과 존재 원리가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체·상·용의 도리와 부처님이 깨친 연기와 맞닿아 있음을 체험하였다. 즉 체(마음), 상(몸), 용(행)과 지(단단함), 수(물), 화(열), 풍(바람)이 고요함 속에서 물처럼 바람처럼 움직이고, 어떤 때는 바위처럼 꿈쩍도 않는 단단함으로, 때로는 몸에 닿는 부드러움으로, 더없는 맑음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차와 불법의 일체성이며 다선일여가 아닐까 싶다.

오랜 세월 불법과 차는 내 삶을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하였다. 알려진 것과 같이 다도茶道는 차잎을 따는 것에서부터 차를 우려 마시는 전 과정을 법도에 맞게 하여 맛과 향기 등을 통해 여유와 사색을 추구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다례茶禮는 다도를 통해 체득된 마음을 일정한 격식으로 드러내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스님께서는 다인茶人으로 살아가는 나에

게 '세속의 화려함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면서 법향으로 맛을 부리는 멋진 삶을 살라' 고 하셨다. 늘 스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얇은 얼음 위를 건듯 여리박빙如履薄氷의 마음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혜혜스님(가운데)과 원정 원만행면 왼쪽

이러한 세월에서 다농 이정애 선생님께서 원정圓貞이란 호를 받고 1989년에 '원정차문화원'을 설립하였다. 이어 '사단법인 원정차문화원'으로 성장시켜 차로 불

법을 전하며 나의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2008년 9월 6일 (사)원정차문화원 20주년 기념으로 '법  
 홍왕 이차돈 성사님 찾자리' 행사는 잊을 수 없다. 차와 불법의 인연에서 처음 신라 땅에 불법을  
 공인하게 한 이차돈 성사를 모신 흥륜사(음력 8월 5일, 이차돈 성사 열반일)에 차 공양을 올리면  
 서 혜해스님과도 인연이 지어졌다. 30년 넘게 매년 차 공양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 찾자리에 두 분 큰스님을 함께 모실 수  
 있었던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이날 은사 명성스님께서 축사에  
 서 '부처님께서도 차는 물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와 기운과 정  
 신을 맑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시며 격려 해주셨다.

(사)원정차문화원은 이 역사적인 순교정신을 온 세계에  
 알려 불교가 세세생생 흥하도록 발원하며 전법하고 있다. 또  
 한 법홍왕릉과 김대렴을 시켜 중국으로부터 차 씨앗을 처음  
 으로 신라 땅에 가져오게 한 흥덕왕릉에 30년 넘게 매년 차  
 공양을 이어오고 있다. 나아가 차의 유통과정에 공이 큰 미황  
 사 부도탑과 한글 창제와 인연이 깊은 신미대사 부도탑에도  
 가끔 차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고향이며 친정  
 인 운문사 부도탑과 대구불교의 대표인 동화사 부도탑에도  
 30년 넘게 국태안민과 불법 흥포를 기도하며 매년 차 공양을  
 올리고 있다.

화려하기는 쉽되 소박은 더 어렵고  
 소박하면서도 소박함 속에 화려함보다 지나가는  
 색향을 머금기가 또 더 어렵다.

내 삶이 삶이 아닌데 불법은 또 어디 있을까? ㉞

화려하기는 쉽되 소박은 더 어렵고  
 소박하면서도 소박함 속에 화려함보다 지나가는  
 색향을 머금기가 또 더 어렵다.

한스원명장



## 60점 짜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일면스님을 받고 -

정우 / 사교과(3학년)



매년 일면 장학회에서는 숭가대학의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감사히 받을 생각만 했지, 일면 장학회가 어떤 취지로 장학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 그러다 이번 가을철,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사장 스님이신 일면 큰스님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이른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여 도착한 낮선 서울. 높은 경사의 산문을 올라 겨우 도착한 불암사에서 도량을 거닐고 계시던 스님과 마주했다. 어색하기도 하고 어른이 어렵기도 해 쭈뼛거리며 인사를 드리자 익숙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시며 편안히 받아주시는 스님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 일면 장학재단 설립과 생명나눔실천본부 활동 등 사회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은사스님의 이야기를 하나 헤드릴까 합니다. 명 자 허 자 스님이신데, 일생 동안 참선만 하셨습니다. 요즘이야 은사스님께 이것 저것 지원받지만 옛날에는 다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런데 강원을 다니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날 은사스님께 3,000원을 얻어 가지고 신발 사고, 찻술 사고, 바늘 사고 그랬는데, 눈갈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남은 100원으로 하나 사 먹었다가 얼마나 혼쫓이 났는지 몰라요. “이놈아, 중이 돼 가지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됐지! 너는 시은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중노릇 못 한다. 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님이 이런 분